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4월 26일 (제104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소중한 추억담

나 그대가 그리워 울부짖었네 울부짖었소
밤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울부짖었네 울부짖었소
그대가 그리워
그대가 그리워
옆에 있을 땐 난~ 몰랐소
그대가 그리도 소중함을...
곁에 있을 땐 난~ 몰랐소
당신이 그리도 소중함을

당신이 그리워 밤새 울며 기다렸소 기다렸소
문풍지 소리만 들려도 그대 오시나
문 열고 뛰어나가도 그대는 보이지 않았소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나~언제나
내 눈두덩은 새파랗게 멍들고
두 줄기 눈물은 시내를 이루네
그대가 오시면 멈추려나 멈추려나

어서~ 돌아오소서 내~ 님이시여
어서~ 돌어오소서 내~ 님이시여
첫 닭 우는 소리에 깨닫고 눈물 흘리며 다짐에 다짐한다오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평화 속 풍요로운 자유를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보내드리지 않으리, 내 사랑 풍요로운 자유와 행복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호와 닛시~ 샬롬!

2020년 4월 22일 코로나를 겪으며
기도원에서 붕우 이초석

붕 우 컬 럼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고, 정말 너무 그리웠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며, 사랑이 가시거리와 정비례한다고 강조하던데,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달 가까이 여러분들을 못 보니 정말 못 견디게 힘들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몽룡과 춘향이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한 듯 매주 만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일상, 당연한 예배와 만남….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감사한 것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사소한 만남, 방해받지 않는 일상이 그렇게 감사한 일임을 이제야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기는 처음입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현재(present)만이 최고의 선물(present)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성전 문이 닫힐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니 지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교회에 충성하고, 더욱 전도에 매진하며, 더욱 헌신하고, 더욱 뜨겁게 교회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차선은 없다. 최선을 다하자'고 외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예 삶에 배수진을 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더욱 주를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당분간 예배를 드리되 예전처럼 자유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약도 있을 테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합시다. 아예 성전출입이 제한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당부컨대 할 수 있을 때 더욱 주의 일에 매진합시다.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8:18~20)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것도 대단한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을 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나요? 있다마다요. 둘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면 됩니다.

말 한 마리는 2톤 정도를 끌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답니다. 그런데 말 두 마리를 묶어놓으면 4톤이 아닌 23톤까지 끈답니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외줄보다 삼겹 줄이 강한 건 아시죠(전4:12)?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겹 줄이 외줄보다 세 배만 강한 게 아니라 그 이상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기도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합심기도를 하면 됩니다. 합심기도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19~20).

외줄보다 삼겹줄이 강하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위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물론 혼자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화급한 일이 생겼을 때 혼자보다는 가족이 모여서, 구역 식구들끼리, 교회 전체가,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답이 빠릅니다. 큰 드럼통에 혼자서 물을 채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리겠습니까? 진이 다 빠질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더 나아가 구역 식구랑 같이, 교회 전체 성도가 함께 한 바가지씩 부으면 금방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열었던 것도 합심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합심기도의 위력에 대해 많이 열거되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행12:5). 그랬더니 베드로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니 거기서도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위하여 여전히 합심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행12:12).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에 블레셋이 침공하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는 그곳에서 금식하고 회개기도를 합심으로 드렸습니다(삼상7:6).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뢰를 발하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대하20:3~4). 그랬더니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대하20:17).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은 에스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개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 조국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에 들어가면서 모르드개에게 부탁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위해 합심기도 해줄 것을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4:16).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대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셔서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부림절을 맞게 됩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괜히 남편의 자존심 세워준다고 아이들이 볼까봐 갈 곳도 없는 남편을 출근 시간에 밖으로 내몰지 말고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힘이 큽니다. 병들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약5:14). 성도가 함께 합심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심기도 할 때 한 가지 지켜야할 수칙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와 같은데요, 줄다리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호흡으로 당겨야 합니다. '영차' 할 때 같이 당겨야 힘이 합해지지, 어긋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절대 힘이 보태지지 않습니다. 그렇듯 합심기도도 같은 제목을 놓고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같은 곳을 계속 톱질해야 그 나무가 넘어지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도의 동역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급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같이 기도해줄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자가 성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장작이 많을수록 불이 활활 잘 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롬15:30~32).

기도의 동역자가 최고의 자산이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잘 따르는 것과 더불어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기를,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가능치 않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해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어부이신데, 그분은 남들보다 늦게 출항해도 늘 만선으로 돌아오곤 한답니다. 다들 그 비법이 궁금했겠지요. 비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남들은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하지만, 그 집사님은 한 시간 동안 아내와 기도한 후에 바다로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족족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광야에서 사람의 힘으로 메추라기를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하나님이 광풍 한 번 일으키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이 바다에 길을 어찌 냅니까? 몇 백 년 걸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가릅니다.

직장이 없습니까? 배필이 없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자녀가 속 썩입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더욱이 합심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늘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이 합심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아들, 딸과 함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그리움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살지만, 없어지면 귀한 줄 알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다. 함께 있던 사람이 떠나면 그립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불편하고, 몸이 아프면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서야 깨닫는다.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예배를 두 달이나 함께 못 드리고 나니 그동안 어디든지 가서 마음껏 예배 인도하고 심방하던 일이 얼마나 그리운 줄 모르겠다. 영원히 못 드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울까. 그동안 한 번도 예배가 번폐스럽거나 거르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음에도 지난날 더 열심히 했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이런 생각 속에 뵈올까봐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한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84편에 다윗의 시인지,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제사를 수종 들던, 주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레위인의 시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의 마음속 깊이 절절히 흐르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일꾼의 심정이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시84:1~10).

그동안 우리 교단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리미리 위성과 유튜브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가슴이 시커멓게 다 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묵직하게 전달되어 옵니다.

교단 모든 성도들 건강케 잘 지켜주심을 먼저 감사드리고, 이 나라도 그만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고,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살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자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행하던 사소한 모든 일들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아름다운 인생 ::

창조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2:7).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믿지만, 반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은 잘 믿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흙을 준다면 흙장난으로 끝나겠지만, 손재주가 좋은 사람에게 준다면 그릇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준다면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우리 몸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흙이지만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하나님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상식 밖에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창2:21). 이 말씀을 보고 독실한 크리스천인 제임스 심슨(James Young Simpson)이라는 의사가 연구하여 1853년 처음으로 마취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성형외과 수술 중 갈비뼈를 이용한 아담의 수술(Adam's Operation)이 있다. 실제로 사람의 206개의 뼈 중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는 뼈는 극히 일부인데, 그중에서도 갈비뼈가 재생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창1:27). 고로 우리에게 내재되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력을 주셨지 한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은성

:: 성경에세이 ::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여보게!

나와 참 막역한 친구며, 참 진실한 장로가 있어 자네에게 소개할까 하네. 그는 대기업의 CEO라네. 그가 어느 날 내게 대형면허를 땄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대형면허를 땄어? 매일 기사가 운전해주는데 웬 대형면허야?"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 "주일마다 버스로 성도들을 교회에까지 모셔오고, 예배 후에 집까지 모셔다드리려고 땄지요." 그는 덧붙이기를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지는지 아세요? 주일 그렇게 봉사를 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라고 했네. 대한민국 몇 대 재벌에 속하는 사람이 버스를 직접 운전해서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자청하는 것에 나는 감탄했네.

그런데 그해 3주간의 하계산상집회를 마치고 그 장로와 만나 골프를 쳤다네. 다른 때 같으면 골프 후에 식사라도 하러 가자고 할 텐데 그날은 그 장로가 조금 서두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날 자기 회사 협력업체 사장들과 식사를 한다고 하더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번 아파트가 100% 분양되어서 협력업체 사장들을 만나 금일봉을 전달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분양이 잘 된 것은 다 그들이 일을 잘 해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공을 그들에게 돌리더라고. 그 말에 나는 또 한 번 감탄했지. 요즘 어디 그런가? 하청업체 알기를 우습게 아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결재도 제때 해주지 않고 어떻게든 껌뎅기나 벗기려고 하고, 이런 저런 갑질을 하는 세상인데, 이런 장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네.

여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자주 욕을 하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 소릴 잘 안 하는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장로가 되어서 그럼 되냐?' 등등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사에 주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 자네가 어찌 행동해야 하는지, 어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게나.

코로나를 겪는 지금,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

朋友

:: 신앙논객 ::

모를 줄 알았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n번방 사건'이다.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비밀대화가 가능한 메신저 프로그램인데, 그런 특징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을 속이고 그들을 협박하여 성적착취를 일삼은 범인이 검거된 것이다. 그와 더불어 그 일에 공조했거나 거액의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던 사람들의 실명과 직업을 비롯한 정체가 수사기관과 언론을 통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놀라운 점은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공범 중에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주범이라는 사람은 대학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했었고, 한 NGO단체에서 팀장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살인자요, 폭행자요, 잔학무도한 범죄자였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던 걸까. 익명으로 이뤄지는 비밀대화니까, 가상화폐로 거래했으니까 흔적이 남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다.

시편 139편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감찰(監察)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시139:7).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당신의 낯을 피해 숨은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닌가? 우리의 추악한 어둠 속 모습들을 다 아신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에 감사할 뿐이다.

우리는 그날 그 시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비디오처럼 돌려보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보는 사람 없다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신혁주 전도사

:: 오늘의 메시지 ::

외롭고 고독한 길

목사 안수식 때 목사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너희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하셨다. 고생길이 열렸다는 뜻일 텐데, 속으로는 '가시밭길만 있겠습니까? 꽃길도 있겠죠.' 생각했다. 나는 그리되길 원했다. 그러나 웬걸.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천리 타국 임지에 와서 생각지 못한 처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다. 기도와 말씀, 찬양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저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버텨내었다.

그 와중에도 손님들이 서울에서 방문하였다. 이초석 목사님을 따른다는 타 교단 목사와 성도들이었다.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니 은혜로웠다. 사건이 터진 후에나 안 사실이지만, 30년 된 정신병 환자를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한국에서는 어디에 버리든 찾아오니 일본 땅에 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지체가 불편한 맹인 성도 집에 맡긴 것이다. 가위를 들고 맹인 성도를 죽인다고 난동을 부려 일본 경찰 셋이 출동했다. 맹인 성도 집에 정신병 환자를 두고 간 것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으니 교회로 데려왔다. 낮 시간에는 돌봐주는 집사님이 계셔서 조금 낫지만, 저녁 시간에는 텅 빈 교회에 나와 둘이 남게 되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밤새 괴성을 지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니 멀쩡한 내 머리도 이상해질 정도다. 오죽하면 버리고 갔을까. 혼잣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환자가 결혼을 못하고 남자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남자를 극히 혐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밤에 온전히 잠이 들 수가 없었다. 언제 칼을 들고 설칠지.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 찾기도 힘드니 초긴장 상태였다. 한번은 지바역 인근에서 발견하여 데려오려 하자 주먹과 지팡이를 휘둘러 얻어맞았다. 예전에 자살하려 했는지 3층에서 뛰어내려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상태라 걷기도 힘들어한다. 간신히 데려와도 걱정은 가시지 않는다. 도무지 제정신을 차려야 귀신을 쫓든지 할 텐데 폭력적이기까지 하니 감당불가다. 나보고 회개하란다. 무엇 때문이냐 하니 강간 폭행 살인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다. 한이 맺힌 대상이 그런 남자였는지 나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지 않으니 부딪힘을 피하는 수밖에. 이래저래 기도로 풀어야 할 일이 쌓인다. 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싸우려고 덤빈다. 귀신을 쫓으려고 때려본다고 한다. 하긴 30년 동안 어딘 안 가봤을까. 얼마나 많은 의사, 무당, 목사를 만났을까. 내 방문 앞에서 계속 중얼거려 방에 들어가라 하니 주먹으로 가슴팍을 친다. 손등도 얻어맞았는데 야무지다. 목사라는 게 정신병자 하나 컨트롤 못하냐 비웃는다. 대학도 못 나오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게 목사라고 폼 잡냐고 한다. 일일이 말대답하기도 우스운 일이니 어쩔 수가 없다. 서울대 지리학과 출신이란다. 재색을 겸비한 인재였을 텐데. 참 안쓰러운 일이다. 기도밖에는. 24시간 찬양과 영상으로 누그러뜨리고자 했다. 자극을 주지 않으려 조심했다. 저녁 시간에는 내 방문을 잠그고 참고 지냈다. 슈퍼에서 장보고 돌아오는데 초콜릿을 그 여자에게 선물로 주라는 내면의 음성이 있었다. 고급이라 아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돌아와 초콜릿을 건네주니 얼굴이 온통 환희에 찼다. '내가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이런 걸 주세요?' 감격해했다. 더 이상 나는 강간범 살인자가 아니다. 마음의 빗장을 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마주 앉아 밥도 잘 먹는다. 뭐라 중얼대는지 즐겁다.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침을 튀기며 밥을 먹는다. '주님. 이러다 코로나로 죽어도 순교지요?' 웃으며 같이 식사했다.

53세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여자가 어린아이처럼 귀엽게 보인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엔 성경책을 들고 내 앞에 앉았다. '나는 서울대는 못 나왔어도 성경은 너보다 잘 아니 무엇이든 물어보라.' 고 했다. "지금 저를 위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세요?"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니 좋아한다.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 책에 축복의 글을 써서 주었다. 프로필을 훑어보더니 '어? 공부도 했네?' 하며 즐거워한다. 둘이서 목사님 영상을 보며 예배드렸다. 찬송을 따라 하며 춤을 춘다. 감격이다. 자잘한 어려움, 시험 따위는 기억나지도 않는다. 이런 감격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길 갈 수 있겠지.

나중에 주의 종을 돕게 치유하여 주소서. 간증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 쉬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저 폿대만을 향해 달려갈 뿐.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소서. 눈앞에 천국이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련만을 허락하심을 알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니 외롭지도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내일은 또 뭐를 사다주면 이 아이가 좋아할까. 퇴근길 딸을 둔 아빠의 마음으로 즐겁다.

이광주 목사
leekjlkj@naver.com

:: 울림있는 삶 ::

욕구 충족

올해 1월에 신정과 구정이 맞물려 있어서 고객들이 외식업체에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 을씨년스런 달이었다. 많은 음식점들이 저조한 주문 수를 보였고, 우리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매년 명절 특수를 누렸던지라 올해도 설 연휴를 통해 매출 대역전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배달 대행업체들이 연합하여 설날 당일 긴 시간 휴무를 설정하는 바람에 많은 업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제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성실한 배달기사들을 눈여겨보았던 터라 그들에게 욕구충족을 시켜주는 고액의 임금을 제시하며 베테랑 기사를 영입했다. 그러자 앞다퉈 서로 하려는 웃지 못 할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드디어 설날 당일 어플 프로그램에 노출된 2%의 업소가 되어 거의 모든 음식 주문을 독점할 수 있었다. 쏟아질 주문량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뗄려오는 마음을 다잡으며 '할 수 있다'를 되뇌며 10분당 주문 1건씩 배달완료를 시키는 이변을 연출했다. 그리고 한때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취업이 어렵다',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며 최저 임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오지만 나는 항상 최저 임금을 웃도는 급여로 직원들을 관리하였었다. 그러면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전7:28).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그러면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을 것이며 나 또한 곧 그 일천 여인 중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추성숙 집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 생활 속의 잠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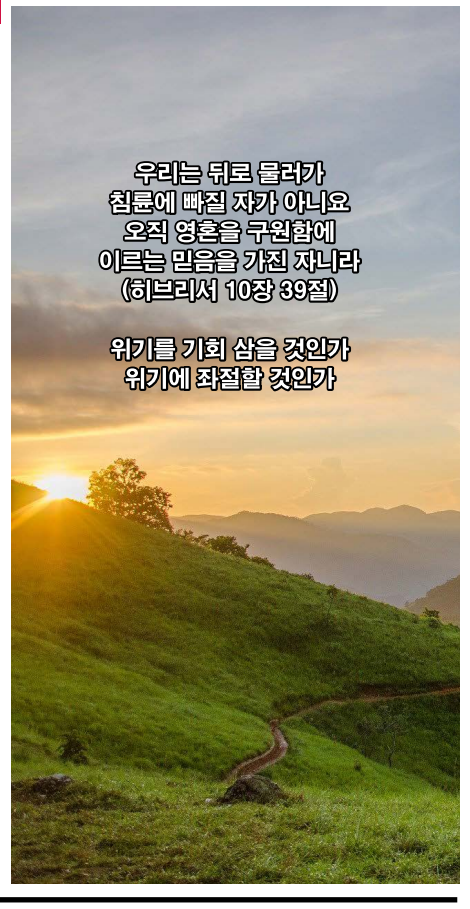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과제

한국예루살렘교회(현 예수중심교회)에 첫 발을 딛고 삼십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과제가 있다. 그건 가족의 구원이다.

가족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긴긴 시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 그러나 가족의 구원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왜 가족구원의 과제는 이토록 긴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사십 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가족을 위한 나의 기도도 광야 기도로 비고 돌고 비고 돌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전심과 진심의 부족으로 주님을 부르는 나의 기도 소리가 주님께 닿지 않는 것인지, 또 그것이 아니라면 자고할까 봐 주님께서 주신 아픔의 과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태껏 살면서 주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응답과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맹인 바디매오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불러 세웠던 것처럼 처절하게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다시 무릎에 힘을 올리고 주님께 인생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와 진실됨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려봐야 할 것 같다.

요즘 깨달은 것은 기도도 계속해야 하겠지만, 나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높이를 맞추고 시선의 높이를 맞추면서 그들의 곳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야 할 것 같다. 내세울 수 있는 권위나 가르치는 손짓보다는 함께 한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키를 낮추고 조절하면 될 것 같다. 진실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고 긴 시간 과제를 해결 못한 건 순전히 하늘만 바라보는 나의 교만함 때문임을 고백한다.

"주님, 제게 그들과 같은 높이의 사람이 되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낮은 자 되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다시 한 번 인생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